

“일할 수 있는 원동력 중요해요”... 당근에 목마른 MZ세대

MZ터뷰

리멤버 개발 실무진

산업계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 문화’가 온전히 자리매김 한 듯 보입니다. ‘워케이션’,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신조어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같은 기업문화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있습니다. MZ세대는 전체 인구 중 34%를 차지, 국내 주요 기업에서 해당 세대들의 비중은 60%에 달합니다. 기업 전반의 핵심 인력이 MZ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들이 기업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같은 변화를 기업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몇 대기업의 총수들은 MZ세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거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내문화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MZ세대 실무진도 이에 함께 공감하고 있을까요?

본지는 각대·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MZ세대 실무자들을 만나 현재 기업문화와 회사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월급사용처 등 시시콜콜한 얘기도 나눠볼까 합니다.

(편집자주)

◆ MZ세대 개발자 만나보니...자발적 ‘ponde’라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리멤버’의 개발 실무진 4명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뻔하지 않았던 그들과의 대화는 날

카롭고 비판적이면서도 꽤나 애사심이 넘쳤다는 것 입니다. 또 스스로를 ‘ponde’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 ‘리멤버’는 필수 앱입니다. 과거에는 명함 관리를 위한 앱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현재는 헤드헌터를 통한 이직, 취업, 소통까지 서비스영역을 확대시켰습니다. 리멤버 타겟은 사회초년생, 직장인, 취업생 등 MZ세대 입니다. 앱 누적 다운로드수 550만, 회원 350만, 스카웃제한 250만 이 대부분 2030세대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소셜 커뮤니티 스타트업이 한 분야만 8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건 ‘타겟’에 집중하려는 리멤버의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리멤버는 타겟과의 소통에 더욱 집중하고 있죠. 리멤버와 가장 결이 맞는 2030세대, 즉 MZ세대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서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리멤버의 최전선에 있는 개발 실무진들도 ‘짧다’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앱 누적 다운로드 수 550만회 명함 관리 넘어 소통 등 영역 확대 ‘타겟과의 소통에 집중’ 전략

리멤버 서비스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 조직 개발자 4명을 만나봤습니다. ▲김정원(웹 개발 8개월 차, 이하 김보도) ▲임현정(iOS 개발 4년, 이하 정) ▲박진(Android 개발 1년, 이하 썬) ▲이한별(서버 개발 2년, 이하 스타)입니다. 별칭은 인터뷰 도중 유쾌했던 내용을 토대로 본 기자가 정했습니다.

아래는 그들과의 즉문즉답.



-전 회사와 차이점이 있다면.

정 “비교할 수 없다. 리멤버 초창기도 다르다. IT회사였던 전 회사는 선임이 없는 상태여서 개발다운 개발을 해본 적이 없다. 4년 전 리멤버는 50명 남짓이었다. 일반 스타트업과는 다르게 규모는 작는데 체계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리멤버에 대한 첫 이미지. 지금은 규모가 3배 이상 뛰었는데, 과거같은 분위기에 규모만 어느새 커져있었다.”

-정이 말한 체계는 무엇인것 같나.

김보도 “불편하지 않다는 게 체계가 잡혀져 있다는 뜻 아니냐.”

스타 “자유로운 분위기가 속박 없는 부서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사적으로 어떤 문화가 가장 마음에 드나. 역량도 커지고 있나.

썬 “원팀 스피릿이라는 문화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원팀 스피릿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명의 조직이 협동해 이뤄내는 문화다. 해당 문화는 하나의 기능을 여러명이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줄고 니즈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목표에 빠르게 도달한다.”

정 “각 크루를 관리하는 PO들이 소통을 위해 1:1 대화 시간을 ‘호톡’이라고 칭했다. 이를 통한 빠른 피드백으로 업무 중 마음에 묵혀둘 사건이 없다. 항상 좋은 얘기만 나오게 아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임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기 보다 수긍, 인정, 다짐하게 된다. 또 회고의 시간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스타 “‘칭찬’을 기반으로 한 ‘타코문화’도 있다. 고마운 크루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타코이모티콘을 주면서 칭찬과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문화다. 또 매달, 분기별 150명이 구성원들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롤모델을 뽑아 제대로 칭찬하는 문화도 있다.”

김보도 “나는 타코가 무려 228개! 한달에 한번씩 리셋 된다. 정말 칭찬을 많이 받은 것이다.”

스타 “현재까지 타코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천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크루만의 문화가 따로 존재하나.

김보도 “이런 부분도 팀별로 케바케인 것 같다. 우리 크루는 우리팀만의 문화가 있다. 스타가 있는 크루는 회사에서도 유명한 ‘핵노잼’ 크루다. 우리 크루

는 ‘핵잼크루’다. 연령대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다. 대부분 20대 중후반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컬처매니저를 자처하고 있다. 회사 안에서 보드게임 안에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사적으로 도입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 입사한지 8개월 밖에 안됐는데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재미있지 않나. 회사가 전체적으로 내향인 많은 분위기지만(?) 이런 것(보드게임)을 해도 눈치주는 사람도 없고 눈치를 보지도 않는다. 분위기 때문인가.”

스타 “핵노잼 크루인거 인정합니다.”

썬 “우리 크루는 정말 재.미.있.는. 것.같.습.니다.”

부서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장점 회사 발전 위해 일... 통하지 않아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원동력 제시

-리멤버, 왜 다니나. 무엇을 만족하나.

김보도 “재미있어서 다니나. ‘우리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일해주세요’는 이제 우리 세대에는 통하지 않는다. 회사는 이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무언가의 원동력을 직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보드게임’ 처럼.”

스타 “2019년 코로나 당시 안전을 위해서 갑자기 리더들이 한 두시간만에 재택을 결정하게됐다. 준비가 하나도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재택근무에 필요한걸 챙기면서 다음날 바로 탈없이 셋 업이 가능해졌다. 이는 유연한 근무가 생활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있다고 생각했다.”

정 “리멤버는 일을 하고 싶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회식이 너무 재미있다. 나만 그런가. 회식을 하면 리더가 집에 좀 가지고 한다. 회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다.”

썬 “리멤버에 들어와서 가장 놀랐던 건 업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회사 페이지를 3일만에 만들었다.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개발, 빠른 소통, 피드백도 출, 접목하다보니 놀랍게도 3일만에 회사 페이지를 만들어냈다.”

정 “또 상사에게 어필해야 하거나 잘

보여야 하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구구절절 보고하고 포장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대가 있지 않나.

김보도 “40대 넘는 리더들도 많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끈대짓을 못한다. 이미 너무 직원들이 영하고 프레스 하기 때문. 끈대짓을 못해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회사내 분위기를 흐릴 수 없을 것 같다.”

-어떤 끈대 짓을 하나.

김보도 “나는 사실 어린 끈대다. 누구에게든 할말은 하는 스타일이다. 내가 하는 끈대 짓은 회사 오면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고 싶다. 실제 인사를 하자고 표현했더니 엄정 욕하더라. (하하)그래도 나는 인사하는게 좋으니까 일단은 하고 본다. 또 회사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싶다. 나는 출근이 좋다. 사실, 같이 보드게임할 사람이 없어서다.”

스타 “나는 해당 인터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끈대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끈대짓은 직원들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표정부터 불편하게 한다.”

-지금 받는 월급 2배 이직 할 것인가

스타 “난 아니다.”

김보도 “난 할 것같은데? 1.5배는 생각해볼 것.”

정 “얘기는 들어본다.”

썬 “난 같 것 같긴 한데 군대를 해결 해주려나?”

김보도 “수직적인 문화라도 2배라면 간다. 하지만 보드게임 때문에 생각해 봐야겠다.”

-본인들에게 월급이란? 그리고 어떤 것을 구입하나.

스타 “저에게 생기는 현금흐름 중에 하나.../휴트레이닝 장비”

김보도 “회사가 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까 2배 준다고 하면 간다고 한 것./ 보드게임”

정 “내가 이만큼을 하고 있고, 제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당근’ / 헤드폰, 화장품, 컵”

썬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해소제 (나이스) / 휴대폰, 키보드, 애플워치”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이한별 서버개발자, 박진 안드로이드 개발자, 임현정 아이오에스 개발자, 김정원 웹개발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IMF 총재 “인플레 잡으려 각국 중앙은행 안고하게 싸워야”
▲영여왕 마지막 비행 보려 1분만에 600만명 몰렸다 /사진 뉴시스

▲바이든, 찰스 3세 국왕과 첫 통화... “긴밀한 관계 지속”
▲서방 지도자들 “푸틴과 통화했는데 안 변해...전쟁종식 멀어”



▲젤렌스키, 이지움에서 돌아오다 교통사고... “큰 부상은 입지 않아” /사진 뉴시스
▲시진핑,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순방... 카자흐·우즈벡 대통령 공방 영접